

漁港消息

발행편집인: 孫井植, 金在克
 인체인: 김태원
 社団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TEL. 544-0610
 544-0611
 FAX. 544-0611
 月刊: 비매품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2월19일

會訓
 ● 誠實
 ● 奉仕
 ● 創意
 漁港은 우리 漁民의 永遠한 어머니 품

韓國漁港協會, 第5期 定總盛了

漁港豫算 확대 對政府建議 關聯施設 積極적인 補強도

尹廳長 漁港開發 강조

협회, 漁港界 공동利益增進 다짐

한국어협회는 2월 20일 서울에서 2월 20일 상모나시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환관 언어협회의 주최한 개정그 규모인 보강을 요망하는



한국어협회의 제5기 정기총회가 2월 20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중회특별문화행사로 살푸리를 공연(이애주 서울대학교수) 했다.

漁港관리법의 根據 綜合機能施設적극 擴充

尹沃榮 議長 辭 致

이회와 한류어협회의 구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어민들의 생활안정, 소득증대, 그리고 어민의 참신한 사업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제 5기 정기총회를 맞

어민과 어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어민들의 생활안정, 소득증대, 그리고 어민의 참신한 사업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제 5기 정기총회를 맞

특히 어민들의 생활안정, 소득증대, 그리고 어민의 참신한 사업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제 5기 정기총회를 맞

어민과 어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어민들의 생활안정, 소득증대, 그리고 어민의 참신한 사업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제 5기 정기총회를 맞

어민과 어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어민들의 생활안정, 소득증대, 그리고 어민의 참신한 사업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제 5기 정기총회를 맞

어민과 어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어민들의 생활안정, 소득증대, 그리고 어민의 참신한 사업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제 5기 정기총회를 맞

新規 지정漁港 본격 開發

올 47億원 投資 15개 항에

수산청이 전국 15개 항에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지정어항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어민들의 생활안정, 소득증대, 그리고 어민의 참신한 사업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漁港會館건립基金 千5百萬元 寄託 南和 崔相玉회장

수산청이 전국 15개 항에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지정어항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어민들의 생활안정, 소득증대, 그리고 어민의 참신한 사업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항명 | 계 | 경소 | 오산 | 구산 | 홍원 | 모항 | 말도 | 수품 |
|-------|---------|--------|-------|-------|-------|--------|-------|-------|
| 총소요 | 112,387 | 11,575 | 6,268 | 8,043 | 5,758 | 6,718 | 3,680 | 6,016 |
| 92배정 | 4,7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내발 | 시산 | 남도 | 다대포 | 여서 | 사동(전) | 김녕 | 수산 | |
| 3,057 | 11,389 | 7,697 | 6,496 | 6,122 | 7,911 | 10,322 | 7,514 | |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500 | |

어민과 어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어민들의 생활안정, 소득증대, 그리고 어민의 참신한 사업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제 5기 정기총회를 맞

전국수産關係官會議 개최

2種港 사업비 내示

全國的으로 1百85個所

事業費 2百10億 7千萬원

孫희장 懸案 해소책 등 促求

유영수 산장장은 지난 1월 27일 수산청회의에서 열린 전국수산물...

Table with columns: 시·도, 국비관련사업, 자체사업, 사업비, 사업지구. Lists projects across various provinces like 부산, 경기, 강원, etc.

어항지정의 지속적 확대 등 어항현안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專門건설業體 적극育成 下都給付日課促進

정부나 국내건설산업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2백억원이상의 예산에 대해...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 현재 공사업역(4천7백54억 7천3백만원)으로 지난...

日、漁港豫算 확정 昨年比 3.9%增

92년도 일본정부예산안이 1월 27일 의회에서 결정된데 따라 어항관계 예산이 2천2백27억6천...

'92년도 일본어항관계사업예산안총괄표

Large table showing budget breakdown for fishery projects in Japan for 1992. Columns include project name, fiscal year, and various budget categories.

信賴받는 檢査業務 具現

- 檢査判定의 標準化
■檢査員의 資質向上
■檢査의 科學化
■製品生産의 指導強化
■輸入水産物檢査의 早期定着化

國立水産物檢査所

所長 李芝淵

漁港計劃樹立의要領

[32]

漁港環境施設

은 것은 아니라고 예상되므로 어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그 어항의 설정에 맞게 예상하면 좋다.

어항은 생선식품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항시 청결해야 되므로 수세소의 구조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어항정화시설

가. 개설
최근 어항내에서 선별, 계량, 경매등을 실시하는 위판장 가공장(加工場)등의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오수에 의하여 항내 혹은 주변 해역이 오염되어 이용 위생미관등의 면에서 문제가 되는 예를 볼 수 있다.

이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항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도수시설(導水施設)이나 배수시설에 의한 항내 또는 주변해역의 청정화를 도모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현재 어항에 있어서의 제반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것은 가공장 배수 및 위판장 배수이다. 가공장 배수에 대하여는 배수량이 50m³/일 이상의 가공시설은 수질오탁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로서 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위판장 배수에 대하여는 특히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본절에서는 위판장에 관하여 기술하고자하나 위판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이외에도 양식어업에 있어서는 어구

및 어패류의 세척, 또는 이료(餌料)의 해동에 따라 오수가 발생되므로 그 특성에 적합한 처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오수의 종류 및 발생량
위판장에서 어획물을 취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의 종류 및 양은 다음과 같다.

① 위판장 바닥의 세척수
어획물의 양륙에 앞서 위판장 바닥을 세척하거나 또는 어획물의 선별 계량 경매등을 종료한 후 바닥면을 세척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 발생량은 당연히 바닥면적에 비례하며 보통바닥면적 1m²당 0.02톤 정도이다.

② 어획물의 세척수
양륙된 어획물을 세척할 때 발생하는 오수로서 선상에서 이미 상자에 담겨진 것은 일반적으로 세척을 하지 않으나 선별을 하는 경우에는 다량의 오수가 발생한다. 권망어업 저인망어업과 같이 어획물의 양륙시 물양장 또는 위판장내에서 선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다량의 세척수가 사용된다. 이 발생량에 대한 조사 사례는 적으나 권망어업의 양륙이 많은 長崎어항과 下關어항에서는 단위어획량당 각각 0.7m³/톤, 0.8m³/톤이란 사용실적에 근거한 수치가 있다.

6) 풍치녹지
국립공원 또는 국정공원(國定公園) 구역내에서 어항계획을 수립할 경우, 목죽(木竹)의 벌채에 조건이 불거나 매립지의 조성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녹지보존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또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녹지의 확보가 의무화되는 일이 있다.

풍치 경관이 빼어난 지역의 어항에는 이상과 같이 타로부터 규제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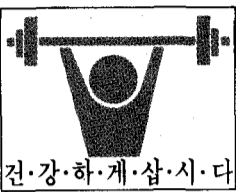
가. 수세소(水洗所)
어항내에서는 어업자, 수산가공종사자 등 많은 사람이 일을 하며 최근에는 부인취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세소는 어항내의 녹지와 같이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수세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위치의 설정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한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계획하며 이용자의 수, 사용의 집중성, 여성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설량을 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용의 집중성에 대하여는 학교나 영화관처럼 시간대가 한정된 것은 아니나 백화점이나 사무소등 각자가 언제나 이용하는 것과 같이 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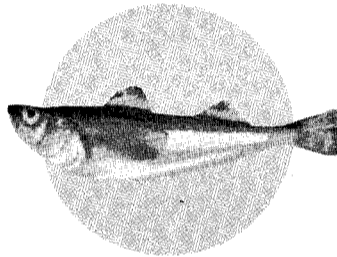
도루묵은(목어(木魚), 은조어(銀條魚), 환파어(還麥魚) 등으로 불리우지는 바닷고기로서 우리 식탁주변에서 아침저녁으로 흔히 대하는 낚시지 않는 생선이다.
이조패어(木魚)의 난을 피해서 살포니 잦았는데 그 피난처에서 평소에는 수라상근 처에도 가지 못했던 이 생선이 그때그때 임박한게는 다 시없이 맛좋은 찬이 되었다. 그랬기에 그 생선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찬했었다고 한다.
그 후 환파어를 샀을 때 신하들은 다시 도루묵을 구해서 수라상에 올렸는데 그때는 맛없다고 불린다고 명 하였다



도루묵

교훈과 건강준다

한방의학에서는 근(筋)과 골(骨)을 튼튼히 해주며 위(胃)와 장(腸)에 유익한 약이다.
그러서 임어(鱒)인 도루묵은 도루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선의 맛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 다.
공이 이런 고사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 도루묵은 우리 생활에 교훈과 건강을 주는 좋은 수산물이다.
도루묵에는 단백질과 지방, 회분, 철분, 칼슘, 인, 비타민 등등의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
특히 지방분과 단백질이 알맞게 배합되어 있어 비린내가 적거나 담백한 맛이 나 는 관계로 일반 서민들이 즐겨 찾는 생선이기도 하다.



특히 발육기의 어린이에게는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대의 형성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마저도 기형으로 되나하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침착성을 잃고 끈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그러서 원만한 성격과 노력의 자녀를 두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도루묵을 식용유에 튀겨서 매일 매일의 식단을 꾸린다면, 그것도 어려서부터라면 틀림없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도루묵을 소개한다.

새秩序·新生活

“사회는 결코 메마르지않은 않다” 무료 자선 병원에 자원봉사자 줄이어 매월 정기 송금회원도 50여명이나

성가복지병원은 국민층을 위한 무료 자선병원으로 90년 7월말 문을 열었다. 이 병원에는 개원 직후부터 대학생, 일반직장인, 주부에서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까지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가소비녀회(聖歌小婢女會) 수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 종합병원은 병상 79개를 갖추고 있는데, 정식 직원은 11명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의료진에서 청소, 주방 일에 이르기 까지 병원의 거의 모든 업무가 3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병원에서는 대학병원 의사와 개업의 등 의사 15명이 시간을 쪼개 무료진료를 맡고 있으며, 개국약사 50여명도 번갈아가면서 병원 약국 일을 맡고 있다. 특히 간호사직을 오래 전에 은퇴한 주부들도 달려와 간호사 역할을 자원하고 나서서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데에는

후원자들의 성금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2백여명이 후원금을 보내왔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회원도 50여명에 이른다.
이 병원이 개원 이후 약 4개월 동안 진료한 환자는 외래 339명, 입원 75명으로 연인원으로 따지면 3,200여명에 이른다. 물론 진료비와 입원비 등은 전액 무료이며

외래 환자의 경우 500원에서 1,000원의 '성금'을 받기도 한다. 이 병원이 일반병원에서 무료자선병원으로 전환한 것은 지난 5월말로서, 보호자없는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돌보는게 수녀회의 본래 취지에 맞는다며 4년여의 논란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병원의 운영에 필수적인 극소수 인력을 빼고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의존하고 운영자금도 후원금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처음에는 수녀회 자체에서도 성공가능성을 반신반의하였다.
이와관련, 이 병원 원장은 “자원봉사자들 일처럼 기쁜 마음으로 병원 일을 돌보아 주고 있다”며 “남을 도우며 살려는 사람들이 예상 밖으로 많은 데 놀랐다”고 말했다.

청주 적십자 부녀회, 다달이 봉사활동

충청북도 청주적십자 부녀회 봉사회는 지난 49년 9월 28일에 결성돼 현재까지 40여년간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벌여 오고 있다. 이 부녀회에는 현재 23명의 회원이 활동중인데, 이들은 매월 7일 월례회의를 갖고 그달의

봉사활동 계획을 작성한다. 봉사회원들은 최근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청천양로원을 방문, 할머니 머리 깎아주기, 점심대접, 주변 청소 등의 활동을 벌였다. 또 장애자보호소인 「갈릴리의 집」을 방문, 장애자 어린이들과 즐

거운 하루를 보냈으며, 청주 소년원을 찾아 230명 원생들의 어머니가 되어 따뜻한 사랑을 나눴다.
회원들은 매월 1인당 5,000원씩 내는 회비로 봉사활동을 펴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은 부족하지만, 따뜻

한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활동에 나서 더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자부한다. 특히 소년소녀 가장이나 고아원, 장애자 보호소를 방문하여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는 청소년들과 함께 빨래도 하고, 함께 놀아주는 것이 어떠한 위문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봉사회원들은 91년부터 영세모자세대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모자가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을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단체가 드물다는 것이 회원들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의 강당을 빌려 모자세대 가운데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아이들을 맡아 보살피는 무료탁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회원들은 고아원, 장애자보호소, 소년원, 양로원의 위문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며 헌혈 캠페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수재민 돕기, 거리질서 확립운동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새秩序·新生活